

## 삼성

## 얇고 가벼운 미러리스 렌즈 교환형 카메라 'NX 미니' 국내 출시



NX-MINI-9MM-Lens\_014\_Front-Flip-Up\_Mint Green

삼성전자가 론칭 쇼케이스를 통해 처음 선보인 가장 얇고 가벼운 미러리스 렌즈 교환형 카메라 '스마트카메라 NX 미니'를 국내 시장에 지난 4월 1일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카메라 'NX 미니'는 두께 22.5mm, 무게 158g(카메라 본체 기준)으로 일반적인 커피 한 잔 보다 가볍고 동전 지갑보다 얇은 슬림함을 갖추며 휴대성을 높였고 회전식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공유 기능을 통해 셀피(Selfie, 본인 촬영)를 넘어서 위피(Wefie, 단체 촬영)까지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다.

'NX 미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색상과 콤팩트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갖춰 여성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요소를 모두 갖췄다. 특히, 신진 디자이너 윤세나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NX 미니 백'을 제작,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NX 미니'를 구매하고 삼성전자 홈페이지(www.

samsung.com/sec)에서 제품 등록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증정한다.

또한, 'NX 미니'로 찍은 셀카 인증샷으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윤세나 디자이너의 백팩을 증정한다.

삼성전자 스토어(store.samsung.com)를 통해 'NX 미니'를 구입하는 선착순 50명의 고객에게도 윤세나 디자이너의 백팩을 증정한다.

삼성전자는 'NX 미니' 출시를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NX 미니'를 알릴 여대생 대상 앰버서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이어 갈 예정이다.

삼성 스마트카메라 'NX 미니'는 민트 그린, 화이트, 핑크, 블랙, 브라운의 총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소비자 가격은 9mm 렌즈 번들은 44만 9,000원이며, 9-27mm 렌즈 번들은 54만 9,000원이다.

9mm와 9-27mm 렌즈가 모두 포함된 더블 렌즈 번들은 69만 9,000원이며 더블 렌즈 번들 구매시에는 렌즈 케이스를 함께 증정한다.

삼성 스마트카메라 'NX 미니'는 화면을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75.2mm(3.0형)의 '플립온(Flip On)'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워크만 하면 2초 후 자동으로 찍히는 '웍크샷' 기능 등을 적용한 셀피 촬영에 특화된 미러리스 카메라다.

2,000만 고화소 BSI CMOS 센서와 1/16,000초 초고속 셔터 스피드 등 DSLR에 버금가는 높은 성능을 구

현해,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노출 변화가 있을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와이파이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를 탑재해 삼성 카메라의 대표적 스마트 공유 기능인 '태그 앤 고(Tag & Go)'를 적용, NFC를 켜 상태에서 카메라에 스마트 기기를 살짝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연동된다.

## 삼양옵틱스

### 삼양옵틱스 영상렌즈 및 포토렌즈 5종 출시



삼양옵틱스 시네 & 포토 렌즈 신제품

광학렌즈 전문 업체 삼양옵틱스(대표 황충현)는 영상 촬영용 렌즈 3종과 포토 렌즈 2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시한 영상 촬영용 렌즈는 각각  $\Delta$ 12mm T2.2 Cine NCS CS,  $\Delta$ 10mm T3.1 ED AS NCS CS 및  $\Delta$ 7.5mm T3.8 Cine UMC Fish-eye이다. 포토 렌즈 카

테고리에서는  $\Delta$ 300mm F6.3 ED UMC CS 렌즈의 APS-C용 마운트 렌즈가,  $\Delta$ 35mm F1.4 AS UMC 캐논마운트 AE 적용 렌즈가 출시됐다. 12mm T2.2 Cine NCS CS는 컴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넓은 광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러리스 카메라 전용 씨네 렌즈이다. 글래스 비구면 렌즈, 복합 비구면 렌즈, 저분산 렌즈를 비롯해 최고의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반사율을 낮춰 불필요한 플레어와 고스트를 최소화하는 나노 코팅 시스템(NCS)이 적용됐다. 소니 E, 후지 필름 X, 마이크로포서드, 캐논M, 삼성 NX 등 총 5개의 미러리스 카메라 마운트에 대응한다. 10mm T3.1 ED AS NCS CS는 DSLR APS-C용으로 설계가 된 초광각 영상 촬영용 렌즈로서 뛰어난 광학 성능을 바탕으로 섬세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109.5도의 넓은 화각을 제공한다. 캐논, 니콘, 펜탁스, 소니 알파, 포서드와 같은 5개의 DSLR 카메라에, 소니 E, 마이크로포서드, 삼성 NX, 후지 필름 X, 캐논 M 등 5개의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응된다. 7.5mm T3.8 Cine UMC Fish-eye는 마이크로포서드용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해 개발된 어안 동영상 렌즈이다. 180도 화각을 통해 어안 렌즈의 새로운 시각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세 개의 렌즈 모두 포커스 기어 링과 무단 조리개 기어 링을 장착해 조용하고 부드럽게 초점과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으며 팔로우 포커스 시스템에 적합하다. 동영상 렌즈와 더불어 포토 렌즈도 2종도 새롭게 선보인다. 300mm F6.3 ED UMC CS의 DSLR 카메라용 렌즈가 새롭게 출시 되었으며 260g의 컴팩트한 반사식 미러 망원 렌즈로 삼양 옵틱스의 독자적인 울트라 멀티 코팅(UMC)이 적용되어 색수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고 불필요한 빛의 반사를 최소화한다.

35mm F1.4 AS UMC는 캐논 마운트의 자동 노출(AE)을 지원하는 렌즈가 새롭게 출시됐다. AE 적용 포토 렌즈는 조리개 모터 내장 및 CPU 칩을 장착해 캐논 카메라에서 자동 노출을 지원하고, 장착된 조리개 모터와 칩을 통해 캐논 카메라 바디에서 조리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정 포커스를 안내하는 지시등이 작동된다. 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삼양 옵틱스의 렌즈는 국내 총판 삼양테크(02-2625-2252)를 통해 5월 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